강의에서 ‘일제강점’과 ‘식민지배’의 차이를 들었다. ‘일제강점’은 ‘강제로 점령한다’ 란 뜻이고, ‘식민지배’는 ‘합법적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제강점이라는 인식을, 일본은 식민지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식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타 민족을 침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상이 식민주의이다. 나는 앞 문장에서 1. 침략, 2. 정당화를 근거로 들어 지배국이 행한 행위가 ‘식민지배’ 라고 인정이 되어도 잘못한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예제 폐지 후 식민주의가 시작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왜냐하면 노예제와 식민주의는 같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어차피 흑인 노예제의 시초도 인종차별이 시작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난 정당화할 수 없게 된 차별을 인종에 귀결했다 라기보다는 인종차별은 원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며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는 같은데 상황이 노예제에서 식민주의로 바뀐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사실 강의를 들을 때 의정부고의 졸업사진, 그리고 흑인음악을 패러디한 장르는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왜 인종차별이라고 할까?" 라고 생각해 보았다. 첫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다. 둘째, "만약 외국인이 눈 찢어진 포즈를 한다면?" 이라 생각해보니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차별을 하는 입장에서 가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행동을 할 때에는 역지사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와 달리 백인을 따라하려는 목적으로 얼굴을 하얗게 칠하는 것은 차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백인 차별은 역사에 없었다. 따라서 이는 차별에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화이트 페이스를 하려고 한다. 흑인 인종차별과는 완전히 반대의 맥락이다. 이도 백인 우월주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차별에도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의도가 있더라도 차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없더라도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